

## UAM 상용화 본격 준비, 산·학·연·관 발벗고 나선다

- UAM 팀코리아 제7차 본 협의체 회의 개최...참여기관 101→167개로 확대
-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기준안 마련에 박차... 속도감 있게 제도화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(위원장) 주재로 UAM 팀코리아(이하 UTK\*)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.
  - \* K-UAM의 주요사항을 논의·심의하는 산·학·연·관 협의체('20.6월 출범)
- 이번 회의에서는 K-UAM의 '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, 실증사업(GC)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  -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'워킹그룹 → 실무협의체 → 본협의체'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,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\*하는 등 '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'을 의결한다.
    - \* LG유플러스·카카오모빌리티 등 GC 대표협약 기관, 강원·충남·경남·전북·전남·세종 등 광역지자체
  - 또한,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, GC-1 단계 통과 기준 확정('24.4) 및 평가단 운영('24.9~)을 통해 컨소시엄별 GC-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- 한편,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\*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,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,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.
  - \* 도심항공교통 사업자 지정 기준, 도심형항공기 종사자 자격 기준, 운항 안전·증명 기준 등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"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-UAM의 자랑"이라면서, "국정과제인 '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,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	서기관	서정석 (044-201-4302)
			사무관	양두석 (044-201-4278)
			주무관	손달현 (044-201-419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## 참고 1

#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

### □ 추진 배경

- '25<sup>말</sup> 상용화 대비 제도마련 등을 위해 UTK는 워킹그룹 중심 논의 지향
- 워킹그룹 참여·기여도에 따른 권한 차등화 및 평가·환류체계 필요

### □ 주요 내용

- (권한 차등화) '워킹그룹→실무협의체→본협의체' 順의 상향식 의결체제로 참여기관 등급 구분(일반→핵심) 및 역할·권한 차등화
  - 워킹그룹 단위로 소관 제도를 할당해 일반 참여기관이 안 마련 →의결 권한은 핵심 참여기관에게 부여(원칙: 본, 위임: 실무)
- (승계) 現 참여기관·GC 통합실증 대표협약 기관·광역지자체는 핵심, GC 실증기관 및 워킹그룹 등록기관은 일반 참여기관으로 승계

구분	주재	역할	권한	기관 구분		
				핵심 참여기관	일반 참여기관	초청기관
워킹 그룹	그룹별 주도기관	•행정규칙·규제특례 지침 등 세부내용 마련 •K-UAM 주요안건 마련 시 분야별 초안 작성 •K-UAM 단위 국제협력 시 분야별 대표참석	참여	○	○	
			의결 (안 마련)	○	○	
실무 협의체	국토부 UAM과장	•WG 논의결과로 올린 안건 논의 및 조정 •기술·전문적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결(본협의체 위임) •본협의체 상정 안건 검토·조정 •정책·제도·기술 동향 공유	참여	○	○	△(관람)
			의결	○		
본 협의체	국토부 2차관	•K-UAM 기본계획 등 정책적 사안 의결 •긴급 정책·제도 마련 시 의견제출 회람	참여	○		
			의결	○		

- (승강제 도입) 1년 주기 실적평가 후 본협의체에서 승강·조정
  - 워킹그룹 참여율에 대한 정량평가와 제도 마련에 대한 기여도 등 정성평가(워킹그룹 주도기관 권한)를 위주로 추진
  - 전문성 기반 워킹그룹 활동이 주요기준인만큼 산·학·연만 대상, 제도·예산 등 파급효과가 큰 중앙·지방정부는 제외(당연직 간주)

### □ 향후 계획

- 즉시 승계\* 후 참여실적('24.4~11) 평가 → '24.12 UTK 본협의체 계기 조정
  - \* (핵심 참여기관) <sup>현</sup>47 → <sup>확대</sup>60개, (일반 참여기관) 107개

## 참고 2

## K-UAM 그랜드챌린지 향후 추진 방향

### □ 주요 내용

#### ① (참여 기관) 일부 기관 협약해지\* 및 참여기관 변경\*\* 요청

\* (협약해지) 플라나, 대우건설-제주항공 컨소시엄

\*\* (참여기업 변경) 롯데 컨소시엄 기체운항 사업자 : 민트에어 →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

⇒ 일부 기관의 협약해지는 수용, 참여기관 변경은 실증 목적·일정 등 실증 수행에 차질이 없는 조건으로 변경

#### ② (실증 일정 및 기간) 컨소시엄별 인력·시스템 준비, 기체 도입 협의 등으로 일정 순연, 비용절감을 위한 기간 단축 요청

⇒ DR, DT를 통한 최적 실증기간 도출로 기간 및 일정 조정

※ 상용화 기체 사용시 5주, 상용화 기체 미확보시 4주, OPPAV 기체 사용시 3주

		20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		3					4					5					6					7					8					9					10					11					12				
주		1	2	3	4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1	2	3	4	5						
GC-1 통합운영		K-UAM 원팀 KAL HDM					롯데 컨소시엄					UAMitra					K-UAM 드림팀					K-UAM Future 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⇒ 추가 실증 희망 컨소시엄에 '26년 이후 고품 노선을 활용한 실증 상설화로 지속적인 실증 및 사업화 기회 제공

#### ③ (통과기준 및 심의) 1단계 통과기준 및 절차 조속 구체화 요청

⇒ 통합운영실증 분야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배포\*(24.4)

\* K-UAM GC-1 운용절차 안내서, 운용절차 부록, 실증점검서 등 총 5종 배포

⇒ '(가칭) K-UAM GC 기술평가단'을 구성(24.8)하고, 컨소시엄별 평가 및 1단계 통과여부 결정(24.9~)